

신안군, 고깃배 빌려주니 청년이 돌아왔다

5년 전 전국 첫 시행 '어선 임대사업' 지금까지 241명 신청 어업인 임차료 연 사업비의 0.3%...지난달까지 33억 매출 청년 귀어인들 호응...중앙정부·타 지자체로 임대사업 확산

신안군이 올해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이 자부력이 부족한 귀어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선 임차를 신청한 지역 청년은 모두 241명이다. 신안군은 어선과 어구를 구매해 지역 어업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청년 어선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청년 어업인 2명에게 7.31t 연안 통발어선을 각각 임대했다. 이번 임대에는 사업비 2억9500만원이 들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까지 군비 32억원을 투입

해 어선 11척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74억원을 확보해 2년에 걸쳐 40여 척의 어선을 추가로 빌려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기준 신안군이 확보한 어선은 모두 25척이다. 흑산도 6척과 비금도 8척, 하의도 4척 등으로 임대 어선이 많다.

지난달까지 신안군이 정수한 어선 임차료는 모두 5000만여 원이다. 이들 어선은 모두 3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어업인은 연간 사업비 0.3% 수준의 임차료를 신안군에 내면 된다. 임차료를 내고 어선매입대금인 원금을 모두 갚으면 어선 소유권은 어업인에게 이전된다.

신안군 어선 임대사업은 배를 사기 어려운 청년



신안지역 청년들이 어선을 빌려 쓰는 '청년소득 임대어선' 취항식이 열린 지난달 29일 박우량 군수와 청년 어업인 등이 취항을 축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어업인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지난해부터는 신안군 사업을 본보기 삼아 중앙정부 차원 '어선 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이 확산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살고 싶은 1004섬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 건설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천사 100호, 천사 200호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젊어지는 섬, 청년이 돌아오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

목포 유달산 봄축제 8~9일 개최 수군퍼레이드·유명 가수 콘서트 버스킹·물레 체험·사생대회 등

목포시가 4년 만의 전면 대면 축제로 돌아온 '2023 목포 유달산 봄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목포시는 8일부터 9일까지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이란 주제로 유달산 봄축제를 연다.

대표 프로그램은 봄꽃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수군퍼레이드이다. 토크콘서트 첫째날은 가수 김범수와 나비가 참여하고, 둘째날은 가수 테이와 김나영이 함께한다.

또 유달산 봄 축제의 꽃인 수군퍼레이드는 목포의 수군 역사에 따라 웅장하게 연출된다.

각계각층이 참여해 시민이 화합하는 메시지를 담아 낼 뿐 아니라 올 가을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마스코트가 행렬에 참여해 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게 된다.

시는 올 축제에서 이순신 장군과 수군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수군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봉 주자장에 수군존을 따로 설치해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9일 열리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 대표 행사인 '수군 퍼레이드 교대식' 모습. <목포시 제공>

이 외에도 '흑도끼를 찾아라', 유달산 일주도로 볼길 버스킹, 도자기물레 등과 같은 체험존, 사생대회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시는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 유달산 일주도로의 진입로가 전면 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임시 주

차장(유달초등학교, 해인여중·고등학교, 목포여자중학교)에 주차 후 이동하길 권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벗꽃이 예년보다 일찍 저물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4월의 신록을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왕인문화축제 '고향사랑' 만개했다

가수 하춘화 등 각계 잇단 기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89만 명이 다녀간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영암사랑'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축제장을 찾은 가수 하춘화, 박찬모 재경영암군향우회장, 이현미 ㈜세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오남호 영암한국병원장, 신복면 박종연씨의 자녀 박정희 내외, 이현수 다은그룹 대표가 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씩을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한 가수 하춘화(오른쪽).

서준중 NH농협 손해보험 부장과 임정빈 농협군지부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임직원 24명도 모두 660만원을 기부하며 동참했다.

직접 축제장을 찾은 영암 출신 가수 하춘화는 기부금 전달은 물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영암군 유치에 기여하는 음악회도 함께했다.

40여년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기부활동을 펼쳐온 하춘화는 '고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피력했다고 군은 전했다.

박찬모 재경영암군향우회장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출향인들이 고향 영암을 늘 잊지 않고 있으며, 응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고향

사랑기부제를 통해 더 많은 출향인의 고향사랑이 표현되고 영암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인 박정희·이혜민씨는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5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영암의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통해 전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속도'

아이랑 사랑방·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곳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해남읍 남동리와 고도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거점시설 3곳이 내년 상반기까지 짓달아 조성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3년차를 맞아 주요 거점시설 3곳이 남동리와 고도리 일원에 내년 5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해남읍 남동리에 들어설 '아이랑 사랑방'은 이달 착공해 오는 9월 준공을 마치며 가장 먼저 조성된다. 국비 4억48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비 7억9300만원이 들어간다.

지상 2층, 260㎡ 규모로, 1층 어린이 도서관·공부방과 2층 수유실 등 '육아 나눔 공간'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아이 돌봄과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해남읍 5일시장(고도리)의 새로운 대표시설이 될 예정이다.

건어물동 2층(420㎡)과 잡화동 2층(700㎡)을 증축해 총 1120㎡ 규모로 지어진다. 2개 상가동을 연결해 옥상에 녹지 공원을 만들고 관광객 인증 사진 공간을 조성해 장날이 아니어도 많은 손님이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비 19억7600만원과 도비 4억원, 군비 4억6000만원, 기금 8억원 등 사업비 36억3500만원을 들여 건립될 계획이다. 오는 8월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준공된다.

건어물동에 들어서는 커뮤니티센터 A동은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공유 세탁소, 마을 카페 등으로 조성된다. 잡화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B동은 건강센터와 공유 공방, 다목적실이 들어서며 상인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상인상생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입주하며 오래된 5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



해남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 주요 거점시설 3곳이 올해 착공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짓달아 조성된다. 해남읍 남동리에 오는 9월 준공될 '아이랑 사랑방' 조감도. <해남군 제공>

다.

청년 창업 공간인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해남읍 남동리에 조성된다.

국비 9억6400만원과 도비 1억4400만원, 군비 3억3200만원 등 사업비 14억4000만원이 들어간다.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들이 주변 상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회의실과 소셜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만들어 창업 기회를 넓혀줄 계획이다.

해남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해남읍 고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진행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군은 '시장·길·천이 아름다운 해남을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살터 해남'을 내걸고 전통시장을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21년에는 오래된 주택 22곳을 정비하고, 지난해에는 해남읍 남동리 사무소와 5일시장 주변 3개 골목길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안심고살길' 조성 사업을 벌였다. 매일시장과 5일시장의 대로변과 천변을 잇는 상권 특화거리 '시장가는 길'도 조성했다.

해남읍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과 상인 역량강화, 육아·주방공유, 시장 축제,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도심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SNS 소문내자'

군, 16일까지 이벤트

진도군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SNS 소문내기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진도군에서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이벤트 게시글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진도군 공식 SNS를 구독·캡처하고 네이버폼에 인증 캡처와 공유 URL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쿠폰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

진도군 공식 SNS에서 실시하며, 경품은 개별 발송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란 주제로 바닷길 만남 한마당, 소망의 조약돌 바닷길 체험, EDM 울나잇 스탠드 쇼 등 총 70여 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며 "소망이 이뤄지는 바닷길 체험과 찬란한 진도 민속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세영장학회, 영광 해룡고에 500만원 장학금

세영장학회(이사장 홍성권)가 최근 영광 해룡고등학교에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장학금은 모두 25명에게 전해진다.



세영장학회는 지난 2007년 영광 출신 홍성권 이사장이 설립했다. 해룡고에는 18번째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영장학회는 그동안 골프 선수 신지애, 박성규 등에게 전달됐으며, 태권도 등 지역 스포츠팀에도 지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홍 이사장은 현재 전남도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협회장을 맡고 있다. 14년여 동안 수상스키협회에서 일하면서 영광에 아시아 수상스키 선수권 대회 유치에 이바지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